

기혼 성인의 원가족경험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Family of origin factors Affecting Family Strength of Married Adult

박 형 원
서울사이버대학교

Park hyung-won
Seoul Cyber Univ.

요약

성인남녀 249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원가족요인 중 공동체의식과 가족화목 요인이 현재 가정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 가족의 집단주의 특징과 가족간의 화목과 율화를 중시하는 전통 가치가 세대를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 서론

1.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급속한 변화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소규모화,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 만혼과 저출산, 성역할의 변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욕구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속에서 가족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성 유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원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친족과 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활하는 체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1].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요인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한 가정환경이고 가장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준다.

원가족경험이란 개인이 출생하여 성장하는 동안 정서적·사회적 소속감을 갖는 가족내에서 부모형제를 비롯한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가졌던 특별한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은 자신과 타인, 대인관계에서 큰 영향을 주고, 결혼 후 새로이 만든 자신의 가족에서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원가족의 경험을 증시하는 초기 가족체계이론가인 Bowen(1978)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고, 가족유대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더라도 원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하여 구성된 가족에서도 원

가족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가족의 결혼생활을 예견하는데 원가족경험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경험이 현재 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성인남녀 249명을 대상으로 원가족경험과 현재 가족건강성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2014년 11월에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1 원가족경험

최현미(1997)가 한국 가족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화한 원가족척도(the Family-of-Origin Scale-55: FOS-5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갈등 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공동체 의식, 확대가족 내의 독립성, 가족의 공평성 등 8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3].

2.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 유영주(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4문항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24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성이 165명(66.3%), 40대 이상인 응답자가 181명(72.7%)이었고, 평균연령은 44.1세였다. 초혼배우자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215명, 86.4%),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181명(72.7%)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17.17년이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84(33.7)
	여성	165(66.3)
연령	29세 미만	7(2.8)
	30세 ~ 39세	60(24.1)
	40세 ~ 49세	110(44.2)
	50세 ~ 59세	69(27.7)
	60세 이상	2(0.8)
결혼상태	초혼배우자와 생활	215(86.4)
	재혼배우자와 생활	5(2.0)
	이혼	19(7.6)
	사별	4(1.6)
	별거	4(1.6)
결혼기간	동거(사실혼)	2(0.9)
	5년이하	24(9.6)
	6년 ~ 10년이하	33(13.3)
	11년 ~ 20년이하	90(36.1)
	21년 ~ 30년이하	71(28.5)
	31년이상	20(8.0)
	무응답	11(4.4)

2. 원가족경험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경험 관련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각 요인들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원가족경험에서는 ‘공동체의식’과 ‘가족화목’이 투입되었는데, ‘공동체의식’만이 투입된 모델 1은 19.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공동체의식’과 ‘가족화목’이 투입된 모델 2의 설명력은 21.3%로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원가족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경험이 많고, 가족이 화목했던 경우에 현재 가족의 건강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72.7%가 40대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인 집단주의, 가족주의 문화에서 성장하였고, 가족간의 화목과 융화를 중시하는 가치가 세대를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원가족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상담과 치료 현장에 적용한다면 가족건강성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유영주,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19-151, 2004.
- [2] 김경자,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3] 최현미, 원가족척도 연구-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4]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45-155.

표 2. 원가족경험과 가족건강성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218)

		R2	수정된 R2	B	β	F	유의확률	VIF
모델1	공동체의식	.196	.192	1.870	.442***	51.612	.000	1.00
모델2	공동체의식 가족화목	.220	.213	1.190 1.019	.282* .224*	29.773	.001 .011	2.065 2.065

* $p < .05$, *** $p < .001$